

KDC 4판의 역사류 관련 부문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form Measure for History Class in KDC 4

김 자 후(Ja-Hoo Kim)*

〈 목 차 〉

I. 서론	및 개선 방안
II. 지역구분표(표조표)의 전개사항 분석 및 개선 방안	V. 地理, 傳記 부분(980-999)의 전개사항 분석 및 개선 방안
III. 표준구분표의 -09 및 「한국시대구분표」의 정비	VI. 사람 관련 공동보조표(民族·國家群區分表)의 신설
IV. 역사부분(900-979)의 전개사항 분석	VII. 결론 및 제언

초 록

이 연구에서는 KDC 4판에 대한 개정 논의가 공개된 시점에서 KDC 제4판의 역사류(역사, 지리, 전기) 및 관련 보조구분(助記表)에 있어서 DDC, NDC, UDC 및 KDC의 관련부분들을 비교·검토하여 KDC 해당 부분의 제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그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KDC 제5판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KDC 4판에서의 역사류(900)를 비롯하여 관련 보조표(지역구분표) 및 해설부분의 모순점이나 오류사항을 지적하면서 바로 잡는 것을 골자로 하여, 지역구분표(助記表)를 현실에 맞게 세분·확장하고 역사총괄부분(900)이나 지리총괄부분(980)에 내부보조표를 신설함으로써 누락되거나 혼잡스러운 부분을 수정·보완하였고, 역사류(900), 민속학(380) 등의 세분 전개에 필요한 사람관련 보조표인 민족·국가군구분표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연구진행에 따라 필요하게 된 분류주기를 해당부분에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지면 제약으로 인해 일부 세분·전개내용은 동일한 전개의 해당 다른 자료(분류표 등)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연구의 본질적 성격은 개정 시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의도된 것이다.

주제어: KDC-역사류, KDC-지리, KDC-전기, KDC-지역구분, 민족구분, 내부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ssibl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System in 21st century through the analysis of history field as the subject of study. As a result of this study, some problems (for example, irrational classification number system, very simplicity of 「Table of Geographic Areas, Historical Periods, Persons」, improper development of class 900, necessity of some internal tables and 「Table of Racial, Ethnic, National Groups」, insufficiency of note etc.) were found out. This study can be useful for the future revision of KDC4 because a revolutionary improvement was provided.

Key Words: KDC-History, KDC-Areas Table, KDC-Table for Person, Internal Tables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ahookim@gwangju.ac.kr)

• 접수일: 2005년 1월 31일 • 최종심사일: 2005년 2월 20일 • 최종심사일: 2005년 3월 7일

I. 서론

KDC 4판이 출간된 이 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논문들이 상당 수 발표된 바 있으며 그 가운데는 주제전개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지면 제약 상 그 전부를 일일이 소개하는 것은 피하고자 한다. 그 밖에 분류시스템 관점에서 연구된 것으로는 도태현을 비롯하여 필자가 1997년에 발표한 것과 유사하게 KDC 4판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제시한 정연경의 논문과 DDC 우선순위표 연구를 기초로 「KDC 우선순위표 채택방안」을 제시한 오동근의 논문이 있는데 주목할만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또한 「외국어 및 외래어의 한글표기」를 다룬 유경숙의 논문¹⁾ 내용은 개정 시에 자칫 제외되기 쉬운데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무튼 향 후 이러한 연구물들이 보다 많이 발표되어 KDC뿐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인 문헌 분류법들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필자는 KDC4판의 제반 문제점들을 부문별로, 비교적 문제가 많은 부문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고찰한 다음 그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장차 KDC 개정 시에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계획하여 첫 번째 연구대상으로 언어류 관련 부문을 선택한 바 있었으며,²⁾ 이번 연구는 그 두 번째 시도로서 “KDC 4판의 역사류 관련 부문 개선방안 연구”이다. 현재 KDC 4판에 대한 개정 논의가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면서 공개된 바 있어서³⁾ 이 연구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1) 유경숙, “KDC 4판(1996)상의 외국인명, 지명 및 외래어의 한글표기 문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4호(1999, 겨울), pp.27-5.

2) 김자후, “KDC 4판의 언어류 관련 부문 개선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4호(2003, 겨울), pp.203-226.

3) KDC 4판에 대한 개정 논의는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DC 개정 주관자들, 즉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는 2004년 7월 15일(목) 오후 2시 협회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졌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한국도서관협회 측에 건의하였다. (이상 도서관문화 2004년 7월호 6 쪽 참조)

1. KDC 5판 개정(2006년 말 내지 2007년 추진)과 함께 한글판 발간을 추진한다.
2. 개정에 대한 정책(안)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3. 종교분야 개정에 대한 의견은 5판 개정 시 반영한다.
4. 유아교육분야 개정 의견은 5판 개정시 반영하고 375.14의 전개방법 도입을 권고한다.
5. 협회 홈페이지와 도메인 및 도서관문화 지면을 활용해 KDC 개정에 대한 사항을 공지한다.

이어서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분류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국십진분류법(KDC) 제5판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기로 하여 개정에 대한 도서관인 여러분의 고견을 접수하여 반영한다는 취지의 다음의 글을 협회 KDC 4판 게시판(URL- <http://www.korla.or.kr>) 의견나눔터 KDC 제4판)에 올렸다.

[다음]

1. 개정판 발간 시기 : 2006년 말 또는 2007년

2. 개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

- KDC 제5판은 한글판으로 하되, 동음이의어, 고유명사, 전문용어 등은 한자를 병기한다.(필자 주 : 근래에 교육 받은 사서들은 중고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아주 비효율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 KDC 제5판 개정 시 전자매체(CD-ROM, 온라인 방식 등)를 이용한 활용이 가능케 한다.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DC, DDC, UDC의 해당 부분을 참조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KDC 4판에서의 역사류(900)를 비롯한 관련 보조표(지역구분) 및 해설부분의 모순점이나 오류사항을 지적하면서 바로 잡고, 지역구분표(助記表)를 현실에 맞게 세분 내지는 확장하고 역사총괄부분(900)이나 지리총괄부분(980)에 내부보조표⁴⁾를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열거중심 전개가 갖는 문제점들인 누락 부분 및 혼잡스러운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였는데 KDC는 본질적으로 내부보조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KDC에도 대부분의 기존 문헌분류표에서 채택하고 있는 내부보조표 수용을 전제로 하면서 분류질차 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보완코자 한다. 그리고 역사류(900), 민속학(380) 등의 세분·전개에 필요한 사람관련 보조표인 「민족·국가군구분표」⁵⁾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동안 KDC와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지적받는 것 중의 하나가 분류주기의 부족 및 미비점인데 필요한 곳은 적절하고 구체적인 분류주기를 설정하였다. 지면 제약 상 일부 세분·전개내용은 동일한 전개의 해당 다른 자료(분류표 등)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연구의 본질적 성격은 개정 시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의도하였다.

II. 지역구분표(보조표)의 전개사항 분석 및 개선방안

KDC 4판 지역구분표(보조표)는 국가구분 수준으로 간략하게 전개되어 있다. 보조표는 열거식 분류표가 갖는 단점인 다면적 측면을 가진 주제를 표현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해주므로 보조표가 풍부하고 상세할수록 첨가할 수 있게 패시(facet)이 많아지고 주어진 정보를 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공통보조표(내부보조표가 아닌 일반보조표)의 경우 가급적이면 상세할수록 좋은 것이다.

(필자 주 : 전연경이 “「전자 버전」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을 뿐 아니라 필자전 해로도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지만 Web-DDC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전자버전구축을 전제로 하는 개정작업이 되어야 한다는데 유념하기 바라는 바이다.)

- 새로운 학문분야에 대한 기술을 철저히 한다.
- 개정을 위한 현장의 소리를 수시로 접수하여 반영한다. - 홈페이지, 도서관문화 등 이용
- 제시된 의견은 분류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주제전문가의 자문, 공청회 등을 이용하여 확정한다.

* 필자 주(제인 : 2004년 11월 22일 현재까지 게시판에 건의된 의견 중 주목할 만한 것은 神道(260)를 삭제 또는 축소하자는 내용으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개정경위를 살펴 보았는데 협회 게시판에 개선된 각계 의견뿐만 아니라 그 동안 그리고 향후 개정 전까지 전문가들에 의해서 발표된 연구결과물들도 빠짐없이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4) 내부표에 대한 분류표들의 명칭을 보면, DDC : 부가표(add table), UDC : 고유보조표(일본어 번역 표현), NDC : 고유보조표, LCC : 내부표(internal table)가 된다. 필자는 향후 기존 분류표들의 내부표를 분석·고찰하여 KDC에 수용하는 방안을 연구·계획하고 있다.
- 5) DDC 제21판까지는 국내에서 「인종·민족·국적구분」으로 표기하였으나 DDC 제22판에서 「Ethnic and National Groups」로 명칭이 바뀌면서 다음 문헌에 「민족·국가군구분」으로 최초로 표기한 것을 따르도록 하였다. 오동근, 여지숙, 배영환, “DDC 제 22판의 개정과정과 새로운 특징,” 도서관문화, 제45권, 제1호(2004, 1), pp.32.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6권 제 1호)

KDC의 지역구분표(보조표)는 본표를 비롯한 분류표 내의 어느 곳에 전개된 지역구분전개내역보다도 상세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다면 구태여 지역구분표(보조표)를 마련할 필요 없이 「분류표 사용법」에서 지리(지역)구분이 필요한 곳(분류항목)은 반드시 「910 - 979와 같이 지리구분하라」라고 명시하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KDC는 지역구분표(보조표)의 전개수준이 본표의 「910 - 979」의 전개내역보다 상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표 내에서의 지역구분 「분류지시 주」를 보면, 「지역구분표를 적용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910 - 979와 같이 지리구분하라」라고 되어 있는 형편이다. 지역구분표(보조표)는 본표를 비롯한 분류표 내의 어느 곳에 전개된 지역구분보다도 상세하여야 한다. 현재 DDC, NDC, UDC 등은 본표의 전개부분과 완전히 일치하는 수준으로 세분되어 있어서 「지역구분 분류지시 주」를 보면, 「지역구분표를 적용하라」라고 되어 있다. KDC의 이러한 방식은 과거의 DDC를 따른 것으로 DDC의 경우 16판까지는 역사(900)의 지리구분을 적용하여 「Divide like 930-999」와 같은 지시에 의하여 지리구분을 참가하도록 하였다.⁶⁾ 그러나 DDC도 17판부터는 지리구분이 본표 수준으로 전개되어 본표의 해당부분과 완전히 조기성을 가진다. NDC도 8판까지는 KDC처럼 본표에 의존하였으나 9판(1995년 발행)부터는 「언어구분표」와 더불어 본표 수준으로 세분하였다.⁷⁾ KDC는 4판이 1996년에 발행되었으므로 DDC 및 NDC의 변화를 꼼꼼하게 검토하였다면 충분히 세분전개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이것은 KDC 4판의 가장 큰 결점 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일차적으로 본표 역사류(900)의 행정구역구분(910-979)과 완전히 일치하는 細구분표를 만들고 기타 누락부분으로 간주되는 지형, 기후, 물(해양구분 등) 등에 관한 구분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지형, 기후, 물(해양구분 등) 등에 대한 구분전개를 보면, DDC의 경우 해양은 大洋을 비롯하여 벵골만, 대한해협, 카스피해 등 지역별로 지도에 나타나는 명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기타 산, 산맥, 강, 호수 등은 낙동강, 알프스산맥, 나이가라폭포와 같이 구체적인 지역별 고유명칭은 나열하지 않고 단지 산맥, 사막, 강, 호수, 산 등 일반명사로만 표현하여 전개하였고, UDC는 DDC와 유사하나 산(山)도 해양처럼 지역별로 구체적인 고유명칭을 어느 정도 열거한 것이 DDC와의 차이점이며, NDC의 경우는 오로지 해양부분만 DDC나 UDC처럼 전개하였을 뿐⁸⁾ 산맥, 사막, 강, 호수, 산 등의 구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시 정리하면 KDC 지역구분표의 경우 1-7까지는 본표 역사류(900)의 행정구역구분(910-979)과 완전히 일치하는 細區分表⁹⁾를 만들고 기타 누락부분으로 간주되는 지형, 기후, 물(水) 등에 관한 細區分은 구체적 명칭을 제시한 해양구분을 먼저 「8」에 전개하되 DDC같이 너무 상세하게 구

6) Melvi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6th ed. (New York : Forest Press, 1958).

7) 日本圖書館協會, 日本十進分類法 : 一般補助表・相關索引編, 新訂9版(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95), pp.7-26.

8) 지역구분표(일반보조표 : I-a 地理區分[地域細目])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일반보조표(II 海洋區分)로 마련되어 있다.

9) 오늘날 이천군이 이천시로, 여주군이 여주시로, 고양군이 고양시로 변경되는 등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변경된 행정구역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분¹⁰⁾ 할 필요까지는 없고 KDC의 지리(980)에 「988.1-988.8」로 전개된 것¹¹⁾ 을 적용하면 되겠는데 이 부분은 NDC의 해양구분과 동일하게 전개되어 있다.¹²⁾ 「9」에는 해양구분을 제외한 지형, 기후, 물(水) 등에 관한 細區分을 전개하되, DDC 지역구분(보조표)에서 「1-9」에서 6(해양구분)을 제외한 전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구체적인 고유지형명(예 : 낙동강)들은 DDC처럼 지역구분표(보조표)나 본표의 역사류(940-999)의 행정구역 전개에 포함시켜도 무방하겠지만 분류표 본표 및 보조표)에 구체적으로는 열거하지 않더라도 지역구분표(보조표)의 맨 앞, 역사부분(「910-979」) 바로 아래 그리고 지리부분(980) 바로 아래에 「분류주기」¹³⁾ 를 마련하면 무난할 것이므로 이를 권장하고 싶다. KDC의 경우 단지 KDC 4판 발행 이듬 해에 발행된 「韓國十進分類法 解説」에만 해당 지역기호를 부여하도록 분류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서¹⁴⁾ 1년 동안 KDC 4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와 같이 KDC 지역구분표(보조표)가, 기존 부분은 상세하게 전개하고 지형, 기후, 물(水) 등 누락된 부분은 추가하여서 완성된다면 분류표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용법을, 해설부분뿐만 아니라 해당 보조표의 처음 부분에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표뿐만 아니라 특정 주제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이나 안내는 안내형식이든(보조표의 경우), 주기형식이든(본표 경우) 반드시 어느 곳보다도 앞서서 해당 부분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DDC 등 대부분 분류표들의 「사용설명」은 보조표 자체의 맨 위 쪽 안내 부분을 비롯하여 제 1권의 서문(Introduction) 등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KDC의 경우는 모든 보조표 어디에도 그 자체에 사용법을 보여 주고 있지 않고 단지 제 1권(본표)의 序說부분에만 나와 있다. 그나마 한국지역구분(보조표)과 한국시대구분(보조표)은 아예 어디에도 그 용법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가 1년 후에 나온 「韓國十進分類法 解説」에 한국시대구분(보조표)의 사용법을 알 수 있는 간략한 예시(고려시대함경도사 → 911.104)¹⁵⁾ 가 나와 있는 정도다. 어디에 나와 있든 「지역구분표」 사용법에 의하면 「지역구분표(보조표)를 적용하라」는 지시주가 없는 항목을 지역구분할 경우에는 「주제 + 09 + 지역구분기호」의 형식으로 조합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지역구분표(보조표)가 표준구분표(보조표)에 예속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서로 다른 개념이 동일기호를 가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로 중간에 0(페릿지시기호)이 삽입되도록 한 장치이다.

이상과 같이 지역구분표(보조표)가 완성된다면 「3. 한국지역구분표」는 필요 없게 되겠지만 그 이전에 기존의 KDC 4판 「한국지역구분표」의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국지역구분표」사

10) DDC는 16에 타일랜드만, 싱가포르 등 너무 자세하게 전개되어 있어 KDC 적용에는 부적합하다.

11) 이 부분은 「해양구분」으로 지역구분표(보조표)에 최우선적으로 전개되어 있어야 한다.

12) 日本圖書館協會, 전게서, pp.27-28.

13) 산, 산맥, 사막, 고원, 강,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등의 경우 그것이 속한 주된 지역(행정구역)에 분류한다. 예 : 낙동강 → 911.8(경상도)

14)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十進分類法解説編纂委員會編, 韓國十進分類法 解説, 改正 第 4版(서울: 韓國 圖書館協會, 1997), p.280.

15) 상계서, p.278.

용법에 관해서는 해당 보조표 윗 부분과 본표 해당 부분(911.1-.9)은 말할 것도 없고 본표의 해설(서문)부분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만약 「2. 지역구분표(제2조기표)」에 사용 안내가 나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3. 한국지역구분표(제3조기표)」의 사용법을 제시한다면 “한국지역구분표(보조표)는 본표 「911.1-.9」에서 맨 앞 9를 제외하고 사용하면 된다. 가령 「광주의 육상경기」는 694.1196 정도가 될 것이다. 지역구분 사용 지시주가 나와 있는 분류항목은 「한국지역구분표」의 유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나 「육상경기」와 같이 「지역구분 사용 지시주」가 나와 있지 않는 분류항목의 경우, 「광주의 육상경기」는 한국의 육상경기(694.11)와 동일한 기호가 되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 고찰한 내용을 요약·정리해 보면 KDC 지역구분표(보조표)의 전개는 분류표 전체를 통틀어서 어느 곳보다도 가장 광범위하고 상세해야하므로 일반행정구역(1-7)은 KDC 「910-979」을, 해양구분(8)은 KDC 「988.1-.8」을, 해양구분을 제외한 지형, 기후, 물(水) 등에 관한 細區分은 DDC 지역구분(보조표)인 「1-9」에서 6을 제외한 전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낙동강 등 고유지형명들은 제외하는 것을 권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3. 한국지역구분표」는 없어지게 된다.

Ⅲ. 표준구분표의 -09 및 「한국시대구분표」의 정비

보편·타당한 분류표를 전제로 할 때 완성된 지역구분표(보조표)를 바탕으로 이후 관련 부분의 전개사항을 순차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하였는데, 먼저 여기서는 표준구분표(보조표)의 -09 및 「한국시대구분표」에 대해서 논급해 보기로 한다.

표준구분표(보조표)의 -09와 지역구분표(보조표)는 본질적으로 助記性을 가져야 하므로 동일하게 전개하는 것이 원칙인데,¹⁶⁾ DDC처럼 지역구분표(보조표)의 내용을 주기로 지시하면 될 것이다. 기존 분류표들의 표준구분표(보조표) -09를 살펴보면, DDC와 UDC의 경우 지역구분표(보조표)의 전개 내역을 표준구분의 -09에 동일하게 전개하였고, NDC는 지역구분표(보조표) 중 해양을 제외한 전개구분, 즉 지역구분(행정구역 : KDC로 치면 「910-979」 부분)만 제시되어 있으며, KDC의 경우 「-091-097」 부분은 “910-979와 같이 지역구분한다”라고 분류주기함으로써 지역구분(행정구역)되어 있고 -098에 기후, 지형, 해양구분¹⁷⁾이 나와 있는데 앞서 수정·보완된 지역구

16) KDC, DDC에는 표준구분표(보조표) -09의 가장 앞부분에 -0901에서 -0905까지 연대(시대)구분이 전개되어 있는데 이것도 독립된 공통보조표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연대(시대)구분 보조기호의 길이라도 짧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은 필자를 비롯한 몇몇 연구에 나타나 있다. 보조표로서의 연대(시대)구분은 역사류를 제외한 다른 주류(주제)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류(900)에는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사건별 시대구분이 제각기 나와 있기 때문이다.

17) 기후, 지형은 한대, 온대, 열대, 산악, 사막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고 해양은 지리(980)부분의 「988.1-988.8」

분표(보조표)와 비교해 보면 해양을 제외한 물(水), 기후, 지형은 훨씬 상세해야 하며, 사실 이들 구분은 앞서 언급된 데로 지역구분표(보조표)에 최우선적으로 전개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KDC의 지역구분표(보조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 아주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시대구분표」의 경우는 본표 「911.01-.09」를 사용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각 지역의 사건별 시대구분은 지역(국가나 지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분류표에서 해당 지역 내의 총류(총괄) 부분에 제각기 다르게 전개되어 있다. KDC의 경우 본표 역사류(900)에서의 총괄부분, 즉 세계사(909.1-6)에 전개된 시대구분은 세계 역사에 알맞게 적절하게 전개되어 있고 특정지역의 사건별 시대구분은 해당 특정지역의 총괄부분에 전개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911)의 기본 전개(911.1-911.9)는 지방구분이 되고 총괄부분(911.01-911.09)에 한국의 시대구분이 전개되어 있다. 역사류의 특징상 이러한 전개는 매우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NDC나 DDC에는 내부보조표¹⁸⁾가 아주 다양하게 채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NDC의 일본 전개에서 보듯이 일본의 시대구분을 하위 지방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장치¹⁹⁾가 나와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지방별로는 시대구분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세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떠하든 KDC에서는 「한국시대구분표」를 한국의 각 지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독립된 공통보조표(4. 한국시대구분표)를 마련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보조표가 되어 버렸다. 다만 1년 후에 나온 KDC 해설집에 유일하게 간단한 예가 제시되어 있어서(고려시대함경도사 911.104)²⁰⁾ 그 용법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다. 사실 이를 알리는 가장 합리적, 논리적 방법은 「한국시대구분」을 「내부보조표」로 취급하는 것인데 NDC나 UDC 처럼 해설부분에서 「내부보조표」를 소개한 다음, 본표 내에 등장하는 「내부보조표」²¹⁾에는 다른 특별한 설명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고 DDC의 附加表(add table)처럼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부가표 앞에 일일이 소개하는 「분류지시주」를 마련하는 방식도 있겠으나 필자는 NDC나 UDC를 추천하고 싶다.

한편 이창수는 기본기호(본표기호)에 시대구분표의 보조기호를 조합하는 방식에 있어서 UDC를 참조하여 괄호() 및 사선(/) 부호를 조합수단으로 채용하고 있다.²²⁾ 그러나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UDC에서 기호조합을 위하여 각종 부호(: ; + / [] () = 등)를 도입한 것은 서지분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즉 목록이나 서지에서 다양하게 검색요소를 제시하기

과 같이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곳은 NDC의 해양구분과 동일하게 전개되어 있다.

18) DDC에서는 「부가표(add table)」라 하고 NDC와 UDC에서는 「고유보조표」라 한다.

19) 이것은 「고유보조표」를 마련하거나 「분류지시주」를 설정하면 가능하게 된다.

20)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十進分類法解說編纂委員會編, 전계서, p.278.

21) 대부분 분류표에 있어서 「내부보조표」의 기호는 -0으로 시작한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합시 다른 개념으로서 동일기호를 가지게 되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0을 DDC에서는 「페시(facet) 지시자」라 한다.

22) 이창수, “UDC 지리·전기·역사류의 특성과 KDC에서의 적용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3호(2003, 9), p.143.

위한 장치로 검색시스템 개발 시에 컴퓨터가 보다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서가분류 측면에서 보면 기호가 복잡하고 순서 정하기가 난해하여 단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다. 이창수의 주장대로 KDC 분류표 전체 기호를 통틀어서 단지 시대구분표(보조표)의 보조기호에만 조합기호인 부호(괄호()) 및 사선(/)를 사용한다면 검색시스템 개발 시 컴퓨터가 그것만 특별히 따로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므로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IV. 역사부분(900-979)의 전개사항 분석 및 개선 방안

地理, 傳記를 제외한 역사부분(KDC의 910-979 부분)의 전개는 4개 분류표 공히 행정구역만 전개하고 있는데 지역구분표(보조표)에 나오는 지형, 기후, 물(水) 등 자연지리 부분의 역사는 사람과 관련 없이 고생대, 신생대 등을 의미하므로 지구과학(KDC의 450)에서 취급해야 하므로 제대로 전개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KDC의 역사부분(910-979)은 개념전개만 따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리고 역사총괄 부분(KDC의 900-909)도 다른 분류표와 비교했을 때 대체로 무난하게 전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역사총괄 부분(KDC의 900-909) 가운데 908의 경우는 UDC와 DDC 처럼 「전집」에서 「민족사」로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뒤에 설명되지만 KDC에도 「민족관련보조표」가 신설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인데²³⁾ 이 때 신설된 「민족관련보조표」를 이용하여 “민족관련보조표에 따라 세분하라”는 「분류지시주」를 설정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보조학」이 역사총괄부분(902) 뿐만 아니라 각 지역기호 총괄부분에 역사총괄부분의 보조학(902)의 전개와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다. 한편 NDC에는 각 지역기호 총괄부분²⁴⁾의 맨 위에 공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通史가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데²⁵⁾ 通史란 “역사 기술의 한 양식. 한 시대나 지역에 관한 특수한 역사에 대하여 전 시대나 지역에 걸쳐 개괄적으로 서술한 역사”²⁶⁾ 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각 지역(국가 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지리 전반을 다룬 문헌, 예를 들면 “일본학은 일본의 역사(210)에 분류하라”고 「분류주기」되어 있는데, 필자는 「일본학」과 같이 각 지역(국가, 지방 등)의 정치, 경제, 사

23) 지역구분과 민족구분이 일치하면 민족구분표(공통보조표)는 필요없게 되므로 민족사도 지역학처럼 각 地域史에서 분류하면 될 것이다.

24) 모든 분류표에서 각 지역기호의 총괄부분에는 해당 지역의 역사사정에 알맞게 시대(연대)구분이 전개되어 있는데 DDC와 KDC의 시대(연대)구분기호는 따로 분리해서 보면 「01-09」의 형태를 취하므로 해당지역(국가)에 세분·전개되어 있는 지방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만약 지방에 적용하려면 내부표(보조표)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 NDC 일본역사의 총괄부분(210.1-7)은 대체로 일본의 시대구분(210.2-7)이 전개되어 있지만 맨 앞자리 기호(210.1)에는 通史를 배정한 다음 그 아래에 文化史(210.12), 災異史(210.17), 對外交渉史(210.18), 戰爭史(210.19)로 세분·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시대구분 기호가 「.02-.07」가 아니라 「.2-.7」인 것으로 봐서 이 시대구분을 일본의 각 지역사에 적용할 의사가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26) <http://kordic.empas.com/show.tsp/?q=132669&f=B> [cited 2004. 11. 29].

회, 문화, 역사, 지리 전반을 종합한 학문을 편의상 「地域學」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통념상 한 국가 내에서 특정 지방의 모든 것을 다루는 학문을 鄉土學이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지방(향토학)뿐 아니라 국가 단위 또는 그 이상의 단위 지역을 포함하는 특정 지역의 지리, 역사, 문화, 경제 등을 종합한 학문을 지역학이라고 하자는 것이다.²⁷⁾ 근래에 들어서면서 일본어학과, 중국어학과 등 외국어학과들의 전공명칭이 일본학과, 중국학과 등으로 변경되는 추세이고 북한학과를 개설하는 대학도 제법 나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련 문헌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는 특정 지역(국가 등)의 역사나 지리 관련 문헌보다도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학을 위와 같이 정의할 때 KDC의 경우 지역학에 관한 구체적인 분류지침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國家書目(015) 아래의 「분류주기」 「特殊地域 및 主題에 관한 書目은 016에 분류한다 例：中國에 관한 書目 016.912」을 통해서 중국 전반에 대한 주제를 다룬 경우, 즉 중국의 지역학은 중국의 역사(912)에 분류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즉, 지역 전반을 다룬 지역주제자료는 해당 지역의 역사(910-979)에 분류한다는 의미이다. NDC도 KDC처럼 해당 지역 역사기호에 지역학을 분류하도록, 예를 들어 일본의 역사(210)에 “일본학은 여기에 분류한다.”라고 註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KDC의 경우 어디에도 적절한 곳에 분류안내가 없어 분류체계 상 허술한 부분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KDC에는 090(총류)에 「향토자료」를 배정하고 있는데, 역사류의 「향토학(지역학 중 국가에 속한 특정 지방을 다룬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090에는 DDC처럼 특정 주제에 국한되지 않는 「필사본, 회귀본」, 즉 「고서나 고문서」를 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북한에 관한 자료의 경우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학 전공이 설치되는 대학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여서 북한학 관련자료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역사류(900)를 비롯하여 지리(980) 및 지역구분표(보조표)에 북한 해당기호를 신설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DDC에도 역사류(900)에 한반도(951.9), 북한(951.93), 한국(951.96)으로 그리고 지역구분표(보조표)에는 한반도(519), 북한(519.3), 한국(519.6)으로 나와 있고 NDC에는 한반도(조선 : 221) 아래에 양강도, 자강도 등 현재 북한 지방의 행정구역명을 포함하는 한반도 지역명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KDC에는 북한을 위한 기호배정이 되어 있지 않아 북한을 한국(911)에 분류하도록 안내하고 있을 뿐 아니라²⁸⁾ 지역명도 북한 건국 이전 것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어서 형평을 잃고 있다. 현 KDC 기호체계로 볼 때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필자도 선뜻 방안을 제시하기 힘들지만 어떠한 방식을 동원하더라도 반드시 지역구분표(보조표)와 역사류(900), 그리고 지리(980)에 한반도, 한국(한국 아래에 한국에 속하는 각 지방명을 열거), 북한(북한 아래에 북한에 속하는 각 지방명을 열거)을 표현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안은 일찍이 전연경도 제기한 바 있고²⁹⁾ 도서관 현장 사서들 사이에서

27) 「지역학」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가령 「한국학」의 정의를 보면 「한국에 관한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종합적 「지역학문」이다.」 (<http://kr.dic.yahoo.com/search/enc/result.html?pk=19937500&userquery=한국학&subtype=enclenctextlencsynonymlencenctextlencsynonym> [cited 2005. 3. 15])라고 나와 있으므로 지역학이라고 표현해도 무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28)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十進分類法解說編纂委員會編, 전계서, p.282.

도 평소 애로사항으로 자주 거론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상에서 볼 때 각 지역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보조학(902)의 전개 내역, 지역학, NDC 通史의 전개내역을 하나로 묶어 KDC의 <910-979>에 적용되도록 「내부보조표」를 설정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해당 부분에 동일한 전개 내역을 되풀이 반복하는 것도 별문제는 없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문헌분류표는 하나의 시스템이므로 분류표의 전개를 논리적·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관점에서는 조합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많지 않다면 「내부보조표」를 설정하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된 「민족사」의 경우는 지역구분과 민족구분이 완전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역사총괄 부분에 따로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

[각 地域史<910-979>에 적용되는 내부보조표]

01 地域學	07 古文書學
02 年代學	08 通史
03 金石學	082 文化史
04 考古學	087 災異史
05 錢貨學(古錢學)	088 對外交渉史
06 歷史地理學	089 戰爭史
069 歷史地圖	

V. 地理, 傳記 부분(980-999)의 전개사항 분석 및 개선 방안

역사류(900)의 다른 부분, 즉 地理(980), 傳記(990)를 보면 KDC와 NDC는 역사류의 맨 뒤의 2개 강목(KDC는 980에 地理를 그리고 990에 傳記를 배정)에 전개되어 있고 DDC와 UDC는 맨 앞 2개의 강목에 배정되어 있는데 역사류(900)의 총괄부분(900-909) 부분은 역사보조학(902), 세계사(909)를 포함하는 역사총괄(총류)부분이 된다. 다시 말하면 「900-979」는 역사에 관련된 전개 부분이므로 DDC, UDC보다 KDC, NDC의 지리, 전기 기호배정이 훨씬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지리학은 흔히 계통지리학(인구지리학 등 각 주제분야별 지리학 과 地誌學³⁰⁾으로 구분되는데, 서울대 지리학과 홈페이지³¹⁾를 보면 “지리학은 인간의 생활공간 즉 지표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리하여 도시와 농촌, 인구, 산업의 입지 및 자원의 유통 등 사회경제 현상과 지형, 기후 등

29) 정연경, “DDC 21과 KDC 4의 비교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권, 제1호(2000, 3), p.192.

30) 특정 지역의 지리적 사정을 분류, 연구, 기술하는 학문 기술된 것을 地誌라고 하기 때문에 분류표에서 지리부분의 기본전개(지역구분)에 해당하는 문헌은 대부분이 地誌를 비롯한 地圖 정도일 것이다.

31) <http://www.geog.snu.ac.kr> [cited 2004. 11. 30].

자연 현상 모두가 생활공간을 형성하는 요소로 지리학자의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리학은 사회과학적 측면과 더불어 인문학, 자연과학 등의 성격도 갖춘 종합학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지리학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백과사전³²⁾에는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으로 양분되거나 자연지리학은 지형학, 기후학, 해양학 등으로 분과독립하고 있으므로 지리학의 본류는 인문지리학에 있다”고 정의된 것으로 보나 오늘날 대학에서 지리학과는 사회과학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도 역사지리, 경제지리, 인구지리, 도시지리, 농촌지리 등 연구영역이 인문·사회분야인 인문지리학 중심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분류표에서의 지리부분은 원칙적으로 지역구분표(보조표)와 助記性을 가져야 하나 KDC, NDC, UDC, DDC 공히 행정구역과 해양구분은 해당 분류표의 지역구분표(보조표)와 서로 일치하지만 지형, 기후, 물(해양 제외) 등의 세분·전개는 생략하고 지리학 총괄부분(UDC는 예외), 즉 「주제별 지리학」에 포함시켰다고 할 수 있다. KDC의 지리학 총괄부분은 계통지리학(주제별 지리학)을 제외하면 여행을 비롯하여 표준구분 전개 등 대체로 무난하게 전개되어 있다. 계통지리학의 경우, KDC는 각 주제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NDC는 290.1 또는 해당 주제에 할 수 있도록 兩者擇一을, 그리고 DDC는 주제별지리(910.1)라고 항목 설정한 다음 兩者擇一을 설정하되 주제별 쪽을 권장하고 있으며, UDC는 지리부분(911)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980.1에 항목 배정하고 DDC, NDC처럼 兩者擇一 설정하되 지리학과가 있는 경우는 지리 쪽을, 그렇지 않으면 주제 쪽을 권장하고자 한다. KDC에서 地圖는 지역구분(981-987 : 대체로 地誌문헌을 분류)과 별도로 항목이 배정되어 있는데 地圖는 형태가 일반도와 다르기 때문에 地誌문헌(981-987)과 別置시키기 위해 별도의 항목을 배정하였다고 판단되며 지도(989)에도 반드시 지리구분표(보조표)를 이용하여 지리구분하도록 「분류주기」해야 하고 계통지리학적 지도, 즉 주제별 지도는 980.1처럼 兩者擇一 설정하되 지리학과가 있는 경우는 지리 쪽을, 그렇지 않으면 주제 쪽을 권장하고자 한다. 주제 쪽을 권장할 때 반드시 [주제기호+ 표준구분기호(-024)]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행관련 항목들은 총괄부분에도 나와야 하겠지만 각 지역(981-987)에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항목이므로 DDC에는 「913-919」 아래에 附加表(Add Table : 내부보조표의 일종) -04를 설정한 다음 여행, 탐험 등을 배정하여 「913-919」 전체에 조합할 수 있도록 「분류주기」하였고, NDC에도 <291/297> 아래에 고유보조표(내부보조표의 일종)를 마련하고서 여행뿐만 아니라 취락지리, 명승, 사진첩 등 상세하게 전개하고 있다. KDC에는 내부보조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980.2, 981 등 지역구분기호 아래에 어수선하게 「분류주기」된 것을 분석해 보면 다른 분류표의 내부보조표의 사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역사 <910-979> 부분에도 「내부보조표」 설정을 제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981-989」 바로 아래에 내부보조표를 설정하되 DDC나 기존의 KDC수준을 좇아 「02(여행 총괄), 0208(名勝踏查集 및 紀行集), 022(史蹟, 名勝, 景觀), 024(세계여행, 안내기), 029(탐험기, 발견기, 漂流記)」 정도로 전개

32) (칼라판) 세계백과대사전, 제17권(서울 : 교육도서, 1988). p.483.

하고 “각 지역의 여행 등은 해당 지역기호에 아래 기호를 조합한다. 예 : 미국워싱턴주 여행(984.29102)” 정도의 「분류주기」를 마련하면 무난할 것이다. 내부보조표의 기호는 한 주제(분류항목) 내에 2개 이상의 내부보조표가 존재하지 않는 한 조합 시 기호 중복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0을 앞세워 「01-09」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KDC의 990은 전기를 비롯한 특정 인물(또는 집단)에 관련된 모든 자료(傳記, 回顧錄, 偉人傳, 逸話集, 言行錄, 便紙, 日記, 人物評論, 追悼錄, 肖像 등)를 분류하는 항목이다. DDC 표준구분표(보조표)의 -092는 「分類名辭」를 「傳記」라 하지 않고 [사람(Persons)]이라고 하고서 “전기 등 사람에 관한 모든 저작물”이라고 「분류주기」하고 있다.³³⁾ KDC의 「分類名辭」가 지도, 전기처럼 해당 분류항목의 대표적 사례를 표기하고 있는데 반해 DDC는 「지도」를 「지구표면의 그래픽 표현물」로 표기할 예에서 보듯이³⁴⁾ 「분류항목」 전체를 규정하는 文句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크게 다른 부분이다. 따라서 KDC에서는 전기만 분류하는 항목이 아니라는 요지의 「분류주기」를 990 아래뿐만 아니라 DDC처럼 표준구분표(보조표) -099 아래에도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이용에 편리할 것이다. DDC(920)는 전적으로 주제별(920-920가 본표 전체와 助記性を 가짐)로만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NDC(280)의 경우 기본전개(281-287)는 總傳(列傳 : 3인 이상)을 지역별로 분류하도록 구분되어 있고 개인전기(2인 이하)를 위해서는 마지막 綱目(289)에 배정되어 있으며, UDC(920)의 경우는 나름대로 특유의 조합방식을 채택하여 개인별 지역별 주제별로 아주 간단하고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분류표들은 그와 같은 다양한 조합방식이 없기 때문에 UDC를 그대로 따를 수는 없는 형편이다. KDC(990)의 경우 맨 앞부분인 「990.1-990.9」의 전개를 보면 司書 등 대체로 총류와 助記性を 가지지만 기본골격(991-997)은 NDC처럼 總傳을 지역별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998에서는 各傳 및 總傳을 주제별(兩者擇一 설정되어 있음)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KDC의 전개가 다른 분류표들에 비해 훨씬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인 總傳(지역에 분류 → 991.1 : 위인전), 음악가 總傳(列傳, 주제에 분류 → 998.67 또는 670.099 중 양자택일), 이광수 傳記(各傳, 주제에 분류 → 998.813 혹은 813.099 중 양자택일) 등 어떠한 유형의 傳記 문헌도 분류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쉬움이 있다면 司書 등 총류와 助記性を 가진 항목들인 「990.1-990.9」에도 998(주제별 傳記)처럼 양자택일 설정이 필요하고 또 여인(990.94), 아동(990.95) 항목의 경우 DDC 「T.1」의 -08 전개 내역을 참고하여 성별, 나이별, 장애별, 친인척 등으로 세분함으로써 뒤에서 논급되는 「사람관련 보조구분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주제별전기(998) 아래에서의 양자택일 분류주기에서, 예를 들어 「이광수전기」의 경우, 학교 및 공공도서관에서는 전기를 한데 모으는 것이 좋으므로 998.813에

33)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 Vol. 1, 21th ed.(N. Y. : Forest Press, 1996), p.31.

34)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 Vol. 3, Schedules 600-999, 21th ed.(N. Y. : Forest Press, 1996), p.810.

대학 및 전문도서관에서는 주제별로 분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813.099에 분류하도록 권장하는 표현을 하게 되면 더 좋았을 것이다.

VI. 사람 관련 공통보조표(民族·國家群區分表)의 신설

사람관련 보조표의 필요성은 과거에 필자뿐만 아니라³⁵⁾ 전연경도 역설하고 있는데 전연경의 경우는 「산타크로스」는 「성탄절」이라는 분류기호 밖에 줄 수 없다는 등 사람관련 보조표 중 DDC로 치면 T.7(Person : 인물군구분표)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³⁶⁾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사람관련보조표」를 KDC에 하나만 설정한다면 「T.7」보다는 DDC의 「T.5」에 해당하는 「민족·국가군구분표」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T.7」은 성격상 특정인물의 종사분야(직업)를 나타내기 때문에 본표와 助記性を 가지므로 「T.7」이 없더라도 傳記書 분류방식을 수용하면 된다. 즉, 특정인물이 종사한 본표기호(특정인의 주제분야)에 표준구분표(보조표) 傳記기호(-099)를 부여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DDC 간략판(12판)에도 「T.7」을 없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³⁷⁾ DDC 22판에서 「T.7」만을 없앤 것으로 봐도 「T.5」가 더 중요한 사람관련 보조표임이 입증되는 셈이다.³⁸⁾ 사람관련 보조표로서의 「민족 및 국가구분표」는 역사류(900), 민속(380) 등에 적용되는 보조표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KDC에는 「민족·국가군구분표」만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DDC에서의 보조표 사용안내를 보면, 가급적이면 「본표기호+보조기호」가 기존의 본표기호와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있다. 사실 DDC나 KDC도 UDC처럼 書誌分類를 강조하면서 다양한 조합기호를 구사하면 중복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DDC의 본표기호들은 대체로 123.456789의 형태, 즉 중간에 0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보조기호의 형태를 표준구분기호에서와 같이 0(폐쇄기호)을 앞세워서 미리 중복을 방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DDC(22판 기준)의 모든 6종의 보조표 기호 앞자리에 전부 0을 배당하면 모든 보조표의 기호가 동일해지므로 가장 먼저 만들어 졌고,³⁹⁾ 또한 가장 대표적이며 다른 모든 보조표의 모체가 되는 「표준구분」에만 0이 붙어 있다. 나머지 보조표들 가운데 특정 주제(본표기호)에 거의 국한되어 사용되는 보조표(내부 보조표 성격 : T.3, T.4, T.6 등)는 특정 주류 내에 綱目 또는 要目으로 전개되어 있을 뿐 아니라

35) 김자후, “KDC(한국십진 분류표) 4판에 대한 제언,” 도서관학논집, 제27집(1997, 겨울호), p.380.

36) 정연경, 전제논문, p.186.

37) Melvil Dewey, *Abridged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2th ed.(N. Y. : Forest Press, 1990), p.190.

38)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 Vol.1-4, 22th ed.(N. Y. : Forest Press, 2003)

39) 김자후, 문헌분류법(광주 : 광주대학교출판부, 1999), p.75.

본표의 다른 부분에 해당 보조구분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본표기호 내에 직접 전개하고 있어서⁴⁰⁾ 별문제가 없으나 본표 전체에 골고루 적용되는 T.2 및 T.5 이 문제가 된다. 이들의 경우 본표 내의 많은 부분에서 「분류주기」로 조합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조기호 앞에 「0」을 취하지 않아도 해당 본표기호 아래 전개된 세분기호와 중복되지 않는 경우이고 지시기호가 없을 경우에는 본표기호에 「-09+T.2기호」, 「-089+T.5기호」를 조합하도록 해당 보조표나 사용법 부분에 안내하고 있다. 이 때에는 조합형태가 본표기호와 겹칠 수 있어서 중간에 「0」을 삽입하여 기호 중복을 미리 막고자함이다. 이러한 방식 채택의 논리적 근거는 앞서 논급한 바와 같이 T.1이 다른 모든 보조표의 모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KDC에서도 지리구분(보조표)의 사용법은 동일한 방식이므로 이러한 근거에 입각하여 DDC 「T.1」의 -08을 「전집」에서 사람관련보조기호로 혁신적으로 바꾸고 DDC의 전개 내용을 따르되 DDC(22판)에서는 T.7보조표(직업을 의미하는 사람관련 보조표)가 없어졌으므로 -088은 없애고 맨 마지막 항목(089)을 「민족·국가군구분」연계 항목으로 설정하고서 본표에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089에 「민족·국가군구분표」 해당 기호를 덧붙이도록 한다. 「민족·국가군구분표」의 세분 전개는 기본적으로 DDC 것을 따르되 自國優位(local emphasis)에 근거하여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기술지원을 주관하는 공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용역을 맡아 연구·발표된 연구물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⁴¹⁾ 그 동안 DDC의 自國優位(local emphasis)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연구결과물은 무수히 많으나 문제는 국가표준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들마다 적용기준이 전부 다르다는 것이다. 위에 소개된 연구물은 내용의 질을 따지기 전에 향후 국가표준으로 결정되는데 가장 유리한 입지를 가진 연구물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북아메리카인(1 : 미국인, 캐나다인 등)을 영국인(여기에는 영국 거주 영국인 뿐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주 영국인도 포함)에 포함시키고 다음과 같이 「아시아인」에 1을 배정하였다.

- 1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인
 - 11 한국인
 - 12 중국인
 - 13 일본인
 - 14 미얀마인
 - 15 동남아시아인

한편 오동근도 위와 비슷하게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 있다.⁴²⁾

40) 총류의 백과사전, 일반연속간행물, 강연, 신문 등의 綱目은 그 아래 葉目에 「국어구분」 및 「지역구분」으로 세분·전개되어 있는데 해당 보조표인 「국어구분표」 및 「지역구분표」의 전개내역과 助記 性を 가진다.
 41) <http://web2.kwangju.ac.kr/~jahookim/myhome/DDC-option.hwp> [cited 2004. 11. 30].

- 1 East and Southeast Asian Peoples; Mundas
- 11 Koreans
- 12 Chinese
- 13 Japanese
- 14 Tibetans
- 18 Burmese
- 19 Miscellaneous . . .
- 2 British, English, Anglo-Saxons; North Americans

그런데 위 두 경우의 전개 내용들은 DDC 내에서의 助記性을 고려하여 일본인 다음에 미얀마인 또는 티베트인을 배정하고 기타 아시아인을 전부 15에 포함시켰는데, KDC는 순전히 우리나라 실정만을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1→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인, 11→ 한민족, 12→ 중국인(소수민족 포함), 13→ 일본인(아이누족 포함), 14→ 인디아인(드라비다인 포함), 15→ 인도·말레이인 및 필리핀인, 16→ 베트남인, 17→ 타이인(삼족) 및 버어마인, 18→ 기타 동양계인 1(터키, 몽골인 등), 19→ 기타 동양계인 2(핀족, 마자르족 등)로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2에는 DDC에서의 1과 2의 전개내용을 전부 배정하기로 하되 미국인(21), 캐나다인(22), 영국인(23), 오스트레일리아인(24), 뉴질랜드인(25), 남아프리카 거주 영국인(26)으로, 그리고 3, 4, 5, 6에는 DDC의 3, 4, 5, 6의 전개사항 가운데서 2자리까지만 수용하기로 하고, 7(고대로마인 등)은 슬라브인 중심으로 전개한다. 8은 DDC 9의 전개내용을 필요한 수준까지 적절히 세분·전개하되 슬라브인 및 1에서 전개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인」을 제외한다. 9는 인종항목으로 정하고 91 코카사스인(인도·유럽인 : 백인), 92 몽골인(황인), 93 니그로인(흑인), 94 혼혈인(앞 세 가지 인종간의)으로 세분한다. 1은 인디아인을 제외하면 황인종을, 그리고 2-7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백인종을 나타내므로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를 비롯한 신대륙의 원주민들은 8(기타)에 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민족·국가군구분표(보조표)」는 지역구분표(보조표)와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KDC에는 「민족·국가군구분표(보조표)」가 없기 때문에 「KDC해설」을 보면 「민족의 역사는 그들이 살고 있는 역사에 분류한다」⁴³⁾ 라고 공여지책을 쓰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민족사는 「지역의 역사」에 분류한다는 의미인데 앞서 말했듯이 「민족」과 「지역」은 상호간에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슬라브인의 역사」는 「러시아의 역사」에 분류하게 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사는 한민족」과 같이 특정 민족의 주된 거주지역 이외에 사는 특정 민족의 경우는 「한민족(11 : 민족 및 국가구분 보조기호) + 0 + 미국(지역구분 보조기호)」의 방식으로 분류한다. 이상에서 제시된 KDC의 「민족·국가군구분표(보조표)」를 전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42) 오동근, “한국도서관을 위한 DDC의 재전개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5권 제4호(2001, 12), p.86.

43)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十進分類法解說編纂委員會編, 전게서, p.218.

- | | |
|------------------------|----------------------------|
| 1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인 | 5 이탈리아인 계통 |
| 11 한민족 | 51 이탈리아인 |
| 12 중국인(소수민족 포함) | 52 루마니아인 |
| 13 일본인(아이누족 포함) | 53 그리스인 |
| 14 인디아인(드라비다인 포함) | 59 기타 이탈리아인 계통 |
| 15 인도·말레이인, 필리핀인 | 6 스페인, 포르투갈인 |
| 16 베트남인 | 61 스페인인 |
| 17 타이인(삼족, 버어마인) | 62 아메리카 거주 스페인인 |
| 18 기타 동양계인(터키, 몽골인 등) | 69 포르투갈인(아메리카 거주 포르투갈인 포함) |
| 19 기타 동양계인(핀족, 마자르족 등) | 7 슬라브인 계통 |
| 2 앵글로-색슨 계통 | 71 슬라브인 |
| 21 미국인 | 72 동슬라브인 |
| 22 캐나다인(프랑스계 포함) | 8 기타 민족 |
| 23 영국인 | 81 기타 인도·유럽인(이란어군인 등) |
| 24 오스트레일리아인 | 82 켈트족(아랍인, 유대인 등) |
| 25 뉴질랜드인 | 83 북아프리카인(이집트인 등 햄족 중심) |
| 26 남아프리카 거주 앵글로-색슨인 | 86 아프리카인(니그로인) |
| 3 노르딕인 | 87 북아메리카 원주민 |
| 31 독일인 | 88 남아메리카 원주민 |
| 35 스위스인 | 89 오세아니아원주민, 태평양제도인 |
| 36 오스트리아인 | 9 인종 |
| 39 기타 노르딕인 | 91 코카사스인(인도·유럽인 : 백인) |
| 4 현대 라틴인 | 92 몽골인(황인) |
| 41 프랑스인 | 93 니그로인(흑인) |
| 42 기타 현대 라틴인 | 94 혼혈인(앞 세 가지 인종 간의) |

Ⅶ. 결론 및 제언

KDC 4판에 대한 개정 논의가 공개된 시점에 맞추어 이 논문에서는 KDC 제4판의 역사류(900 : 역사, 지리, 전기) 및 관련 보조표(助記表)를 대상으로 DDC, NDC, UDC 및 KDC의 관련부본들을 비교·검토하여 KDC 해당 부분의 제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그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KDC 제5판의 개정에 一助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KDC 4판에서의 역

사류(900)를 비롯하여 관련 보조표(지역구분표) 및 해설부분(KDC 해설 등)의 모순점이나 오류 사항을 바로 잡는 것을 골자로 하여 몇몇 보조표를 신설하였는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구분표(보조표 : 助記表)를 현실에 맞게 세분·확장하였다.

둘째, 표준구분표(보조표 : 助記表)의 -09 및 「한국시대구분표」를 정비하였다.

셋째, 본표 역사류(900) 전반을 정비하고 지역별 역사부분(910-979) 및 지역별 지리부분(981-989)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각 각 「내부보조표」를 신설함으로써 누락되거나 혼잡스러운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넷째, 역사류(900), 민속학(380) 등의 세분 전개에 필요한 사람관련 보조표인 「민족·국가군구분표」를 신설하였다.

다섯째, 연구진행에 따라 필요하게 된 「분류주기」를 해당부분에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지면 제약으로 인해 일부 세분·전개내용은 동일한 전개의 해당 다른 자료(분류표 등)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연구의 본질적 성격은 개정 시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의도된 것이므로 이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관련 분류표들의 해당부분과 비교·대조하면서 읽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문헌분류표의 개정 동기는 일차적으로 학문이나 지식의 발전·변화에 순응하기 위하여 내용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문헌분류 전문가의 몫이 아니라 해당 주제분야의 전문가 몫이므로 이 부분은 전적으로 이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이 때 그 동안 DDC의 자국우위(Local Emphasis) 메커니즘으로서 임의 규정(Option) 방침에 의거하여 많은 도서관과 전문가들이 지역구분, 언어구분⁴⁴⁾ 등을 전개해 놓은 것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분류법(표)은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필자 소견으로는 KDC는 단순한 표(table)에 불과하므로 「한국십진분류법」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는 KDC에 관한 연구로서 주제개념의 전개 타당성뿐만 아니라 유용한 분류도구가 될 수 있도록 System, Tool, Device 측면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문헌분류표 개정 주관자들은 흔히들 분류전문가이므로 해당 분류표의 시스템 측면, 즉 조합방식 채택여부, 보조표의 신설, 폐지 및 수정사항, 내부보조표의 채택 문제, 우선순위표 마련 등에 관한 개선문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분류표를 보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위치에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인 註記설정이 요구되고, 특히 제 5판에서는 상관색인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사실 분류표를 창안(개발)하는 과정에서 분류항목에서의 主題名辭를 비롯하여 註記사항에서의 용어, 해설부분에서의 용어를 결정하고 동의어, 유의어 등을 추가하는 단계에서는 색인전문가가 참여하여 이 모든 결정을 주관하고 이러한 용

44) 국내 도서관에서의 언어별 장서 수에 따른다면 KDC처럼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순이 아니라 한국어, 영어 순이 되어야 현실적이다

어를 색인어(동시에 검색어)로 하는 훌륭한 색인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때 어떠한 典據⁴⁵⁾를 채택하는가가 중요하고 외래어 및 외국어 표기 시 原地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등의 모든 결정지침을 「분류표 사용안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KDC4판에서는 「언어」를 「국어」로 표기한다던가 「브라만교」를 「婆羅門教」로, 「이슬람교」를 「回教」로 표기하는 정도의 부적절한 표현이 너무나 많아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유경숙은 이를 합리적으로 바로 잡고자 올바른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개정 시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45) 〈http://nlsh.nl.go.kr/classify/classify_simple.aspx〉 → 몇 달 전까지 왼쪽의 웹사이트를 열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여 개발한 한글기반 시소러스 수준의 주제명표목표 및 KDC 검색시스템이 열렸으나 현재는 안됨. 아무튼 콘텐츠는 존재할 것이므로(필자도 관여하였음) 이것을 국가표준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KDC 개정 주관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分類名辭」등을 마련한 다음 「상관색인」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싶다.